

강이야기

4

River & Culture



이 학 영 | 우리협회 이사
한국자생어종연구협회 회장
(koreafish@hotmail.com)

우리 하천 우리 물고기

두우쟁이 : 곡우 때를 맞추어 나타나는 물고기

학명 : *Saugogobio dabryi* Bleeker

지역 방언 : 강모래무치, 사치미, 궁지, 미수개미, 긴꼬리모래무지

분류 : 잉어목 모래무지아과

자생 수역 : 한강, 임진강, 금강의 일부 수역

주 서식장소 : 물 흐름이 완만하고 산소가 풍부한 큰 강의 중하류

번식기 : 4월 곡우 - 5월 초

크기 : 약 20-25센티

모래무지와 닮은꼴이면서 강의 하류에서 번식을 하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봄의 전령사가 있으니 바로 '두우쟁이'라는 물고기다. 24절기의 하나인 곡우, 즉 양력 4월 20일을 전후로 강변에 잠깐 모습을 비춰주는 이 어종은 일반인들에게는 그 이름이 다소 생소할 것이다.

동그런 체형과 가늘고 긴 몸이 특징이며 특히 등지느러미에서 꼬리지느러미까지의 길이가 몸시 같다. 체측에는 13개 내외의 진하고 동그스름한 눈 크기 정도인 반점들이 몸통에서 꼬리 쪽으로 세로지르며 박혀 있고 그 밑으로 거의 직선에 가까운 옆줄과 황갈색의 기다란 세로띠가 자리 잡고 있다. 가슴, 배, 뒷지느러미 시작 부분에도 황갈색의 반점이 짙지만 선명하게 나타나고 한 쌍의 비교적 짧은 입수염을 가지고 있다.

늪사꾼 등 물고기를 많이 접해본 사람들조차도 이 어종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래무지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두 종은 자세히 관찰해 보면 다른 점을 발견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모래무지와 달리 몸이 매우 길쭉하고, 눈에서 입 끝까지의 길이가 짧고, 등이 튀어 오르지 않았으며, 지느러미에는 깨알 같은 반점이 거의 없고, 옆줄 밑으로 황갈색의 띠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잘 알고 이를 모래무지와 달리 정확히 식별하는 분들이 있으니 바로 대대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한강, 임진강, 금강변의 어부들이다. 필자는 4월 곡우 전후로 두우쟁이를 조사하기 위해 길을 떠난다. 이들이 출몰하는 수역을 답사하며 채집조사 및 현지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들을 만나 탐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임진강 포구에서 만난 어부들은 이를 강모래무지라고 부르고 있었으며 일반 모래무지와는 전혀 다른 어종으로 확실히 구별하고 있었다. 또한 어촌계의 다른 어부는 이를 미수개미라고 부르며 곡우 전후 10일 정도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접차대를 이어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강어부를 보기 힘들고 두우쟁이의 어자원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부들만이 주로 사용했던 이 물고기의 정겨운 토박이 방언들도 현장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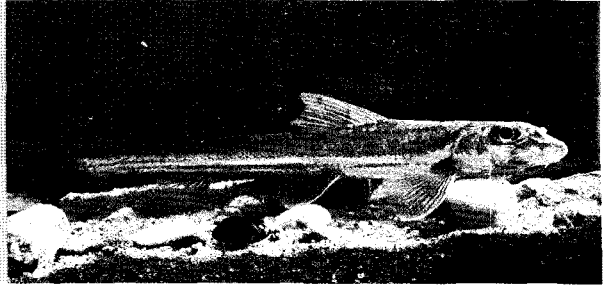
곡우는 4월 20일 전후이다. 이 시기에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은데, 이때를 어떻게 알고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지 이 시

기가 되면 임진강의 종류에서는 두우쟁이가 어부들의 그물에 해마다 걸려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환경부 보호종으로 지정되었으나 어느 순간 해지되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어종의 생태적 특성과 개체의

희소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보호대상이 되어야한다고 본다. 두우쟁이가 서식하는 하천이 되게 하려면 모래톱과 자갈, 맑은 여울이 유지되게 하여야 한다. ☺

〈그림 1〉 두우쟁이
모래무지보다 몸이 더 옆으로 길쭉하고
채색도 다르다.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방언으로 부른다.



〈그림 2〉 두우쟁이 서식처인 임진강 종류
곡우 때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두우쟁이가 가장 많이 출몰하는 하천이다.



〈그림 3〉 두우쟁이의 대가리
끝이 뭉툭하고 번식기 때는 보랏빛
혼인 줄무늬를 띤다.



〈그림 4〉 두우쟁이의 폐사
수질오염에 민감한 두우쟁이가 다른
어종과 함께 폐사한 모습



〈그림 5〉 한강 하구 서식처
두우쟁이가 봄과 가을에 걸쳐 오르내리는
김포 천류리 포구

